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사상에 대하여

량만석*

【국문초록】

서경덕(화담, 1489~1546)은 16세기의 진보적인 철학자로 20대에 벌써 독자적인 유물론적 자연관을 확립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일원론철학을 체계화하였다. 그의 기일원론철학은 이 시기 관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주자성리학적 관렴론철학과 뚜렷이 대조되어 일가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 중세 철학 사상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의 기일원론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의 시원에 대하여 밝힌 유물론적 '태허'설로 이는 시공간적 무한성을 가진 근원적 실체, 보편적 존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 물질운동의 원인에 대하여 밝힌 '기자이(機自爾)'설이 있는데 이는 '기'에 스스로의 의미를 덧붙여 그것의 자율적 성격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다. '기자이'설에서 기들은 물질의 내재적 변화능력의 근원으로 되는 음양 두 氣의 대립적 질서 또는 그 호상작용을 가리킨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 이루는 것은 기불멸설이다. 그에 의하여 기불멸설이 제기됨으로써 물질불멸의 사상이 확증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물질적 실체의 보편성과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이 이론적으로 확고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불멸설의 의의는 물질보존의 사상을 천재적으로 추측하였다는 데에 있으며 이는 중세유물론이 달성한 귀중한 성과이며 가치 있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서경덕, 기일원론, 유물론적 자연관, 태허설, 기자이설, 기불멸설

* 사회과학원 김일성주의연구소 박사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서경덕은 16세기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서경덕(화담, 1489~1546)은 16세기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철학자였다. 서경덕은 비범한 자연관찰과 창조적인 사색을 통하여 20대에 벌써 독자적인 유물론적 자연관을 확립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일원론철학을 체계화하였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은 그 내용의 독창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당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 시기 관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주자성리학적 관렴론 철학과 뚜렷이 대조되어 일가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 증세철학사상발전에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세계의 시원에 대하여 밝힌 유물론적 ‘태허’설이다. 서경덕은 세계의 시원을 ‘허’ 또는 ‘대허’라고 보았다. 그는 ‘태허’의 본질에 대하여 “태허는 멀끔하여 형제가 없다. 이것을 선천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로는 끝이 없고 과거에 시초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한 끝을 모른다. 멀끔하게 허하고 고요한 것이 기의 시원이다. 끝없이 넓은 우주에 짝 들어차서 빈틈이 없고 털끝 하나도 드나들 수 없다. 그런데도 사실은 차있으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들을만한 소리도 없고 맡을만한 냄새도 없어서 술한 성인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주렴계, 장횡거는 말을 하고도 밝히지 못했으며 소강절은 단 한자도 쓰지 못하였던 문제이다.”(『화담집』 권2, 잡저, 원리기)라고 밝혔다.

‘태허’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큰 허공, 무한한 우주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어의론적 해석만으로도 ‘태허’가 주로 공간적 무한의 견지에서 규정된 실체 개념임을 직관적으로 음미해 볼 수 있다.

그에게서 ‘태허’는 시공간적 무한성을 가진 근원적 실체, 보편적 존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여 ‘태허’는 사물형성 이전의 ‘선천’과 같은 시원적 존재이며 불가의 ‘공’이나 로자의 ‘허무’와 전연 구별되는 객관적 실재이다.

서경덕은 더 나아가서 '허 즉 기'의 사상을 제기하여 '태허'가 바로 물질적 실체임을 확증하였다. 서경덕의 '허 즉 기'에서 '허'는 물질적 실체로서의 기의 본질 본체로서의 기의 특성을 규정짓는 개념이다. 즉 본체로서의 기는 감각적구체성을 가지지 않는 무형의 실체이며 '허'는 바로 그러한 본체론적 징표를 표현하고 있다. 서경덕은 자기의 최후의 걸작이라고 할수 있는 논문 「귀신사생론」에서 그것을 더욱 선명히 정식화하여 '기의 담일청허'(이 개념은 논문에서 무려 네 차례나 언급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한 우주관이 피력되고 있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태허'에 대한 선행자들의 견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보편성을 밝혀내기 위하여 매우 심오한 철학적 사색을 기울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서경덕이 제기한 '기의 담일청허' 즉, '담일청허한 기'는 시공간적으로 무한하고 발생도 소멸도 없는 우주자연의 보편적 시원이며 색깔, 소리, 맛, 냄새와 같은 성질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 물질적 실체이다.

오늘날 견지에서 보면 증세인들이 설정한 것과 같은 근원적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의 통일적 기초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나의 철학적 가정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당시 증세인들은 그 어떤 '최종적 실재'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실제로 믿고 있었으며 그의 탐구에 골몰하면서 거기에 객관세계의 보다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징표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물질적 실체 혹은 본체개념이 자기 발전의 합법칙적 귀결로서 물질개념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물질적 실체의 보편성을 강조한 서경덕의 '담일청허한 기'의 제기는 물질개념에로의 발전에 있어서 일보의 전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서경덕의 '담일청허한 기'가 이후의 학자들 특히 임성주의 기학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이와 같이 '태허'설은 물질적 기의 시원성과 실재성을 철학리론적으로 보다 심오하게 론증한 유물론적 학설이며 서경덕은 그에 기초하여 우주자연의 발생발전과정과 허와 기, 리와 기의 호상관계문제를 기일원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유물론적 자연관의 초석을 닦아놓았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질운동의 원인에 대하여 밝힌 '機自爾'설이다.

지난 시기 사물운동의 원인을 그 자체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은 이리저리 하게 있었지만 그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견해를 제기한 학자는 장재였다. 장재는 '태허' 즉 기의 취산을 부득이하야 그러한 자기 운동으로 보고 그와 관련하여 '기'(機, 기틀)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그는 "무릇 회전하는 사물에는 그 움직임에 기틀(機)이 있다. 이미 기틀이라고 말하면 동은 밖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금에 이르기를 '하늘은 좌로 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거친 이론이다. 영원한 것은 일월이 출몰하고 항성이 어둡고 밝아지는 변화이다. 항성이 낮과 밤으로 되는 것은 地氣가 그 기틀을 타고 좌측에서 가운데로 돌기 때문이다."(『정몽』, 태화편)라고 하였다. 그가 이처럼 '기'(기틀)의 개념을 제기하여 물질운동의 내인성을 규정한 것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氣가 기틀을 탄다(乘機)고 함으로써 운동원인으로서의 기틀을 그 주체인 물질적 실체와 분리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것은 분명히 장재학설의 약점이 아닐 수 없었다. 주희가 태극(리)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소승지기'(所乘之機, 태우는 기틀)에 크게 의거한 것도 장재학설의 이러한 약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서경덕은 물질의 자기 운동을 표현하는 개념인 '기'(기틀)에 외래적인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기에 스스로의 의미를 덧붙여 그의 자률적 성격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출현한 것이 독창적인 '기자이'(기틀이

스스로 그러하다)설이다.

그는 “홀쩍 뛰며 문득 열리나니 누가 그렇게 시키는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自能爾)이요. 자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리에서의 時라고 한다. 운동과 정지, 단힘과 열림이 없을 수 없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기틀이 스스로 그러한 것(기자이)이다.”(『화담집』권 2, 잡저, 원리기)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경덕의 ‘기자이’설에서 ‘기’(기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경덕의 ‘기자이’에서 기틀은 물질의 내재적 변화능력의 근원으로 되는 음양 두 기의 대립적 질서 또는 그 호상작용을 가리킨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물질적실체인 기는 대립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요소, 례하면 음과 양, 동과 정, 감(물)과 리(불), 합과 벽, 생과 극의 통일체이며 기가 자체 안에 대립물을 포함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하나의 기(一氣)라고 하였으나 하나에는 곧 둘이 들어있다. 하나가 둘을 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그 자체가 능히 극을 생하는 것이니 생하면 극하고 극하면 생한다.”, “기가 하나라고 하였으니 그 하나에는 곧 둘이 함축되어 있고 태허가 하나로 되어있으니 그 가운데는 둘이 함축되어 있으며 둘인 이상에는 합과 벽, 동과 정, 생과 극이 없을 수 없다.”(『화담집』권 2, 잡저 원리기, 리기설)라고 하였다. 즉 ‘기’(기틀)는 사물운동의 내적계기, 내적 필연성을 확정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경덕은 이러한 음양 두 대립물이 사물 안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사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음양 두 대립물의 관계는 배제관계가 아니라 의존관계이며 그것들은 각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호상 제약하면서 통일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의부지기’(依附之機, 호상 의존하는 기틀), ‘일기’(一機, 하나의

기틀)로 정식화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물질의 영원한 자기 운동을 담보하는 궁극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이나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는 것은 원래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자연의 한 가지 일이다. 음양의 하나의 작용과 동정의 하나의 기틀(一機)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하여 류행순환이 스스로 중지될 수 없는 것이다.”(『화담집』권 2, 잡저, 복기견천지지심설)라고 지적하였다.

서경덕의 이러한 ‘하나의 기틀’에 관한 사상은 대립물의 호상전화, 호상침투, 호상극복을 물질운동의 자기 원인으로 규정한 심오한 변증법적 견해이다.

서경덕은 이처럼 독창적인 ‘기자이’설을 제기하여 물질의 운동을 철두철미 그 자체의 내재적인 리치로 설명하고 그 사상을 개념적으로 훌륭히 정식화하였으며 그것으로써 사물운동을 초자연적이며 절대적인 정신적 실체인 리에 의한 것으로 왜곡하던 주자성리학적 관념론철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더욱이 서경덕의 ‘기자이’설은 그 투철한 유물론적 성격에 있어서 스피노자(1632~1677)의 실체의 자기 운동에 관한 사상보다 한 단계 앞선 것이며 이것으로 하여 그의 사상은 세계철학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 이루는 것은 기불멸설이다.

서경덕은 논문 「귀신사생론」에서 사람의 생사문제, 형체와 녀, 육체와 정신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기불멸 사상을 제기하였다.

사람의 생사문제 ‘귀신’의 개념 속에 통례적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사후존재에 관한 문제는 아직 인간의 정신현상에까지 관심할 수 없었던 당대 자연과학발전의 미숙성으로 하여 유물론적 해석이 가장 미미한 부분이었으며 따라서 관념론은 종종 여기에 기생하여 육체, 나아가서 물질을 초월하며 그와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신비적 실체의 영원성을 설교하려고 시도하였다. 서경덕은 이러한 관념론적 시도를 배격하고 귀신사생문제에 유물론적 해답을 줌으로써 물질적 실체의 보편성을 철학적으로 론증하려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은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이며 사후에 존재한다는 귀신 역시 기가 흩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물론 귀신은 인간의 정신지각현상으로서 보잘것없는 초목에 비해 지속적인 차이가 있지만 귀경에는 모두 흩어져 《태허》로 돌아간다. 결국 인간의 생사와 귀신은 기의 취산의 세계에 존재하는 유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정신지각의 그 어떤 불멸성에 대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르러 그의 논의는 기불멸사상으로 전진하게 된다.

그는 인간의 정신지각과 개별적인 사물은 한계가 있지만 그 본체를 이루는 기 자체만은 발생도 소멸도 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서 영원히 존재하는 기, 즉 본체로서의 기란 다름 아닌 ‘담일청허한 기’이다. 그는 “취산은 있어도 유무가 따로 없음은 기의 본체가 바로 그러하다.”, “담일청허한 기는 태허가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 시초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모여 한없이 넓고 두터워짐으로써 천지가 되고 우리 인류가 된 것이다.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형체와 넓이 흩어질 뿐이요, 모여서 담일청허한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며 그것이 태허의 담일(청허)한 그 속에 흩어져 동일한 기로 남아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담일청허한 기는 이미 그 시초가 없었고 종말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리기의 극히 묘한 면이다.”(『화담집』 권2, 잡저, 귀신사생론)라고 하였다.

그에게서 ‘담일청허한 기’는 우주와 천지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적 실체이고 무한한 세계의 본체이며 사람의 정신지각을 포함한 모든 사물현상은 다 ‘담일청허한 기’의 발현형태에 불과하다. 세계는 ‘태허’로부터 현상으로, 현

상에서 다시 '태허'에로의 변화과정을 거치는 바 이 과정 속에서 현상계의 사물들은 부단히 발생하고 소멸되지만 기 자체('담일청허한 기')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것은 곧 기의 불멸성을 보여준다. 즉 서경덕의 기불멸론은 '담일청허한 기'불멸론, 물질적 본체의 불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경덕에 의한 기불멸설의 제기는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서경덕에 의하여 기불멸설이 제기됨으로써 물질불멸의 사상이 확증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물질(물질적 실체)의 보편성과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이 이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서경덕의 기불멸론은 철저히 물질불멸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의 기불멸설의 제기는 이전 시기 유물론과 성리학적 관념론사이의 본체론적 투쟁에 전체를 두고 있다. 이 투쟁은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송나라 철학자들인 장재, 정이, 주희로부터 시작되었다. 장재는 로자의 허무설을 비판하면서 “모여도 나의 체요, 흩어져도 나의 체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정몽』, 태화편)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를 넘두에 둔 것으로서 기의 불멸성을 확증하려는 유물론적 시도였다. 이와 달리 정이는 “무릇 사물이 흩어짐에 그 기는 완전히 없어지니 본원에 복귀할 리가 없다.”(『이정유서』)라고 하였으며 주희도 “모이면 유요 흩어지면 무다.”(『성리대전』)라고 하면서 기의 소멸론을 들고 나왔다. 이들의 견해는 리를 영원한 근본적인 존재로 보고 기는 리의 지배 하에 사물을 형성하는 자료로만 보는 그들의 관념론적 립장의 응당한 귀결이었다. 이로부터 서경덕은 정신적 실체인 리의 영원성을 설교하는 성리학적 관념론을 타파하고 유물론적 로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기불멸설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덕의 기불멸론을 정신불멸사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주관적이든 아니든) 오늘도 일부 론자들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물질적인 기의 불멸성을 존재론적으로 확증한 서경덕의

본의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역사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시는 유물론철학 앞에 관념론적 정신불멸론(리본체론)을 타파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던 시기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투철한 유물론자이고 우수한 철학자인 서경덕이 그 무슨 정신적인 것(생명까지 포함하여)의 불멸성에 대하여 론증하였을 수는 없다. 사실 서경덕은 그 어떤 생명현상, 정신현상의 불멸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유한성을 강조하려 하였으며 인간의 형체와 녀이 흩어진 후에 남에 되는 물질일반으로부터의 '담일청허한 기'의 무한성을 론증하려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서경덕은 이른바 정신불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어떤 인생관적 진리를 심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학상에서의 관념론적 반동을 분쇄하려 하였던 것이다.

서경덕의 기불멸설의 의의는 물질보존의 사상을 천재적으로 추측하였다는 데도 있다.

서경덕은 기불멸사상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향과 초가 타는 생동한 실례를 들어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는 “한조각의 향이나 초기운이 비록 목전에서 없어지는 것이 보이더라도 그 남은 기만은 역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 어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겠는가.”(『화담집』 권 2, 잡저, 귀신사생론)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향이나 초가 탈 때 그 원체는 전부 타 없어지지만 '여기'(나머지 기)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여기서 '여기'개념의 제기는 그의 독창적인 발견으로서 거기에는 심오한 철학적 사색이 담겨져 있다. '여기'는 기의 형태전화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기는 운동과정에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전화되는바 기가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은 이러한 형태전화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보존된 기는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그는 이 사상을 '동일기'(同一氣,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증가와 소멸도 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 자

체)라는 아주 훌륭한 말로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물질이 한 질적 상태에서 다른 질적 상태로 전환되어도 그 총량은 변함없이 보존된다는 물질보존의 사상이 맹아적으로 추측되어있다.

이것은 물론 근대 실험과학적 기초위에서 제기된 물질보존에 관한 사상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 경험적 방법으로나마 그러한 사상을 추측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이처럼 물질의 영원성, 보편성을 확증한 서경덕의 기불멸설은 사물현상에 대한 주도세밀한 관찰과 심오한 사색, 비상한 탐구력에 기초한 천재적인 추상력의 발현으로서 중세유물론이 달성한 귀중한 성과이며 실로 가치 있는 학설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서경덕은 당대의 가장 큰 유물론철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일원론철학을 체계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유물론전통을 고수하고 유물론사상을 가일층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높은 철학적 사유수준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참으로 중시기에 서경덕과 같은 뛰어난 유물론 철학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Abstract

Concerning The Theory of Unified Reason and Energy by Sô
Kyông-dôk

Yang, Man-Sôk

Sô, Kyông-dôk who is famous for his pen name, Hwadam, was a progressive philosopher in the 16th century. In his twenties, he established his own thoughts of materialism, distinguishing himself from the philosophical trend of Neo-Confucianism. His theory explores the fundamental being in the unlimited frame of space and time. Also he suggested a theory in which energy is not nullified at any rate. Relating energy to the heavenly body, his theory posted a milestone in the medieval time.

Key Word

Sô Kyông-dôk, Theory of Unified Reason and Energy, Theory of Un-nullified Energy